

전문가가 선정한 키아프 차세대 작가는?

ABC뉴스 강현 기자 | 2025. 8. 12. 11:30

‘2025 키아프 하이라이트’ 세미나파이널 작가 10인 선정 파이널리스트 3인, 키아프 기간 중 현장 심사 통해 발표



2025 Kiaf HIGHLIGHTS 세미나파이널 작가 10인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아라, 김정인, 무나씨, 박그림, 박노완, 유 시아오, 지오프리 피통, 홍세진, 조은시, 이동훈(사진 제공 각 갤러리)

김아라(김리아갤러리), 김정인(라힌), 무나씨(에브리데이몬데이), 박그림(THEO), 박노완(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이동훈(갤러리 SP), 조은시(갤러리림), 홍세진(갤러리플래닛), 지오프리 피통(MAAT Gallery), 유 시아오(Lucie Chang Fine Arts).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가 선정한 차세대 작가 10인의 면면이다.

한국화랑협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키아프 서울 2025’를 앞두고 차세대 유망 작가라 할 수 있는 ‘2025 Kiaf HIGHLIGHTS’ 세미나파이널 작가 10인을 최근 공식 선정했다.

2025 Kiaf HIGHLIGHTS는 참가 갤러리들이 각 1인의 작가를 추천하고 주요 미술관 학예사, 독립 기획자 등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뢰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인을 선정한 것이다.

선정 기준은 동시대 시각 예술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젊은 작가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작가로서의 정체성, 표현 방식의 독창성, 그리고 동시대적 맥락에서의 서사적 설득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심사위원단은 “작가가 구축한 고유한 시각 언어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개념·매체·재료·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동시대적 맥락을 환기하는지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관객에게 새로운 인식 경험을 제안하는지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어려웠던 젊은 작가들을 소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화 중심의 구성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고유한 소재와 매체 실험을 통해 독자성을 구축하려는 작가

들의 노력과 실험적인 접근이 돋보였다”고 부연했다.

2025 Kiaf HIGHLIGHTS세미파이널 선정 작가들에게는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제공된다. 이들은 키아프 공식 웹사이트, 도록,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되며 각 갤러리 부스에서는 'HIGHLIGHTS' 명판과 함께 작품이 전시된다.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은 키아프 행사 전후로 코엑스 내 엑스페이스(Xpace)를 통해 홍보되며, 강남구 무역센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에서는 8월 말부터 약 2주간 하루 3회씩 동시 송출된다. 또 리드 미디어 파트너 마리끌레르는 10인 작가의 서면 인터뷰를 담은 아트 에디션 특별판을 비롯해 다양한 협업 콘텐츠를 제작, 배포한다.

2025 Kiaf HIGHLIGHTS 파이널리스트 3인은 키아프 기간 중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공동 주최사 코엑스의 후원으로 1인당 1000만 원씩의 창작지원금이 수여된다.

이성훈 키아프 운영위원장은 “키아프 하이라이트는 갤러리가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향후에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소개하고, 미술시장의 다양성과 미술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ABC뉴스]

<https://www.abcn.kr/news/articleView.html?idxno=81568>